

“폭행후 숨 끊어져가는 시민군 가마니로 덮어 방치”

전교사 사진병 5·18 증언

“가마니로 전신이 뒤덮여 숨이 끊어져 가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38년 전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 연병장에서 본 계엄군의 만행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광주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공수부대가 무자비하게 때려 죽였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17일 만난 전교사 사진병 출신 김모(61)씨는 38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김씨는 대학교 2학년이었던 1979년 1월 입대해 1981년 6월까지 전교사에서 복무했다. 상병일 때 5·18을 겪었던 김씨는 ‘5·18에 대해 말할까’ 다칠 수 있다’는 주위의 만류가 있었지만 기억이 잊혀지기 전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터뷰에 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5·18이 터지고 공수부대가 전교사 막사에 주둔했다”며 “전교사 내부에는 축구장 2~3배 크기 연병장이 있었는데 외곽지역 부대에 식량을 가져다 주기 위해 헬기(UH-1H 기종) 수습대가 수시로 들락거렸다”고 회상했다.

그는 “사령관이 윤희정 중장에서 소준열 소장으로 교체된 날이었으니 정확히 1980년 5월22일로 기억한다”며 “배식을 마친 헬기가 지휘본부 인근에 착륙했는데 시위대 2명이 잡혀왔다.

대기하고 있던 공수부대가 진압봉과 군홧발 등으로 마구 때리고 짓밟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잡혀온 시위대는 상의가 벗겨져 있었고 벗긴 옷을 이용해 손이 등 뒤로 묶여져 있었다.

헬기서 시위대 내리면

대기하고 있던 공수부대원들

술냄새 풍기며 무차별 구타

식당서 만난 정보요원들에

“도청 지하 무기 해체” 들어

머리 길고 사복 입은 정보요원

시민군 사이서 모종의 공작 한 듯

광주 출신 김씨는 자신이 아는 사람이 잡혀왔을 까봐 근무하고 있던 인쇄소에서 연병장 주위 200여 m를 걸어 시위대 근처로 갔다. 김씨가 도착했을 땐 쓰러져 있는 시위대에게 가마니가 덮여져 있었고 또다른 시위대는 구타를 당하고 있었다.

김씨는 “3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멀쩡하게 헬기에서 내렸던 시위대가 구타를 당해 죽음을 이뤘다”며 “혹시나 아는 사람일까 몸 전체를 덮은 가마니를 들춰봤는데 그가 생명이 끊어질 듯 숨을 쉬었다 안 쉬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더러운 가마니로 덮여져 있는 그는 죽어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수부대는 시위대가 살아 있었음에도 이미 시신 취급을 하며 가마니를 덮은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며 “5월26일까지 헬기로 매번 시위대가 잡혀왔는데 차라리 시위대가 처음부터 쓰러져 붙잡혀 오기를 바랐다”고 털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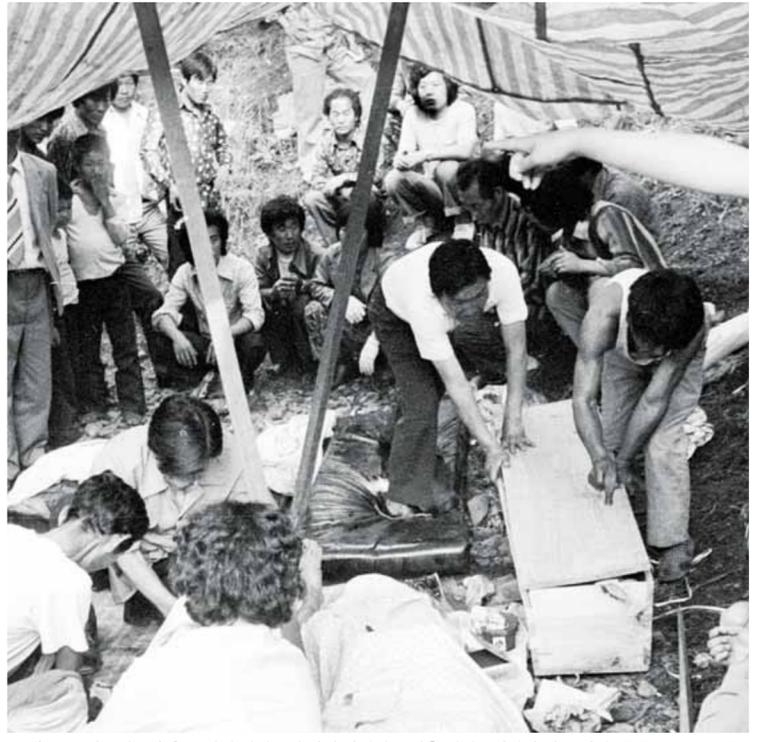
당시 부대에서 시위대를 구타한 공수부대원들에 개선 술냄새가 나는 듯했고 대검과 진압봉이 부딪치는 소리 등이 살벌하게 들렸다. 김씨는 밤이면 멀리서 들려오는 총소리에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을 까봐 마음을 졸였다. 당시 김씨의 집은 백운동에 있었다.

전교사는 중장비를 동원해 지름이 1m 이상인 바위로 정문을 봉쇄하기도 했다. 시위대가 습격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씨는 “시위대가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전교사를 습격할 마음을 어떻게 먹겠냐”며 “나중에 교도소 습격설에 대해 듣고 보니, 전교사도 습격설을 만들기 위해 미리 작업을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든다”고 주장했다.

식당에서 자주 만났던 정보대 요원들은 ‘자신들이 도청 진압 작전 전날 지하 무기를 해체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김씨는 “10여명으로 구성된 정보대 요원들은 평소 사복을 입고 머리로 길러 민간인들과 구분되지 않았다”며 “대부분 부대 밖에서 정찰활동을 했는데 아마 시민군에 침투해 모종의 공작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씨는 “나보다 상황을 더 잘 알고 있는 전교사 지휘본부에 있던 장병들이나 소령급 이상 지휘관들의 증언이 이어지면 좋겠다”며 “5·18 때 겪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으니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주검을 시민들이 수습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1980년 5월1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M-16 소총에 대검(원 안)을 장착한 공수부대원들이 광주시민을 쫓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5·18 계엄군 대검 장착 군 문건으로 확인

손금주 의원 입수 국방부 문건

공수부대 대검 휴대·착검 증언 수록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를 막는 과정에서 계엄군이 소총 끝에 대검을 장착한 사실이 군 내부 문건으로도 확인됐다.

19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대검을 휘둘러 시민을 살상한 정황은 그동안 다수의 목격자 증언을 통해 기정사실로 여겨졌으나, 우리 군은 지금까지 이를 공식 부인해왔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입수해 17일 공개한 국방부의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1988년 5월, 5·18 당시 대검에 의한 인명 피해가 있었는지 직권 조사했다. 이 조사는 ‘(군인이) 대검으로 여성의 신체를 도려냈다’는 내용의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 해당 소문이 ‘악성 유언비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대검 착검과 관련,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된 한 군인이 ‘계엄군의 최초 ‘위력시위’ 당시 대검을 휴대하거나 착검했으나 시민의 항의로 즉시 착검을 해제했다’고 한 증언을 문건에 수록했다. 공수부대 10개 대대가 차례로 광주에 출동하면서 소총에 대검을 장착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 것이다.

‘대검으로 여성의 신체를 도려냈다’는 소문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시위 진압 도중 대검을 사용한 적은 있다’는 사실을 군 스스로도 시인한 셈이다.

5·18 당시 민간인 사망자 자료를 보면, 갈 길이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자상’이 최고 11명으로, 이는 계엄군이 시위 진압에 대검을 사용한 것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18특별법 재심 청구 대상 확대 개정안 발의

민주당 노용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용래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특별재심 청구 대상 확대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일부지만 직접적인 저항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을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한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직접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만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 의원은 “현행법에서 특별재심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적용했다”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5·18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분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66주년

제 63회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 축제

접수기간 | 2018. 6. 5(화) ~ 6. 8(금)

개작품요

- 대상 : 전국 미취학 어린이
-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결과발표 : 2018년 6월 21일(목)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 주제 : 제한없음

참가

- 참가비 : 7,000원 (20명 이상 단체할인 5,000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16층 (우 61482)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그리기축제 담당자 앞

유의사항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사항은 일반적인 대화요강에 준함

문의 |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주최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